

강원도, 강릉공항에 중형기 운항 추진

강원도는 강릉공항에 승객 250~300명을 태울 수 있는 A300-600, 보잉767 기종 등 중형기 운항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중형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와 유로 확장 등 시설 보완비 67억원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강원 영동지역에 금강산 유람선 취항에 이어 내년 국제관광엑스포, 동계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이어지면서 항공수요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1년 완공을 목표로 3,50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양양 국제공항 건설이 예산부족으로 공사일정의 차질이 예상돼 대책이 절실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강원도는 이미 지난달 공군부대를 방문, 활주로등 비행장 시설을 보완하면 중형기 운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놓고 있으며 강릉공항에 67억원을 들여 중형기를 운항할 경우 양양 국제공항 개항 때까지 연간 120억원이 지역에 투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남북방향으로 건설되는 양양 국제공항이 기류 등의 영향으로 이착륙이 불가능할 경우 동서방향인 강릉공항이 보완관계를 유지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부가 양양 국제공항과 중복투자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99년 관광엑스포 등을 위해 강릉공항의 중형기 운항이 절실하다”며 “6개월이면 시설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이나 이스턴 항공 포커 100 처분

중국의 유일한 포커 100 운용 항공사였던 차이나 이스턴 항공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커 100 항공기 전체를 처분할 방침이다. 차이나 이스턴 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10대의 포커 100은 현재 남아메리카 최대의 포커 100 운용 항공사인 TAM에 인도되고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를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TAM은 올해 4대와 1999년에 6대의 포커100을 인수

해서 총 40대의 포커 100을 보유하게 되었다.

US 에어웨이즈 A330용으로 PW4173 선택

US 에어웨이즈 항공이 프랫 앤 휘트니의 하이브리드 PW4000 계열을 선택한 최초의 항공사가 되었다. 이 항공사는 이미 주문한 30대의 A330-300 항공기 중 일부에 추력 7만3천 파운드의 PW4173을 사용할 예정이다.

PW4173 엔진은 고출력엔진인 PW4198의 코어부에 직경 2.54미터의 PW4168의 팬을 결합시킨 혼혈 엔진이다. 이 엔진은 전체 추력은 PW4168보다 증가했지만 코어부의 성능은 오히려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엔진의 내구성은 오히려 개선되었다고 프랫 앤 휘트니사는 밝히고 있으며 이 PW4173 엔진은 내년 중으로 형



유일한 포커100 운용사였던 차이나 이스턴항공이 포커100 전체를 처분할 방침이다

식 증명을 마칠 계획이다.

US 에어웨이즈 항공에 대한 A330의 인도는 내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A330초기형은 기본형 엔진인 PW4168이 사용될 것이다. 이 항공사의 A330중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들은 장애물이 많은 유럽 산간 지역의 공항지역 등에 주로 취항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베리아, A340 추가 발주

아이베리아 항공이 11대의 A340을 추가 발주함으로써 20대에 가까운 A340을 보유할 전망이다. 이미 8대의 A340-300을 확정 발주한 상태에서 아이베리아 항공은 최근 6대를 확정 발주하고 5대를 옵션 발주했다. 새로 발주된 A340-300 항공기의 인도는 1999년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이 항공기는 3단계 객실 구분으로 총

249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으며 엔진은 CFM56-5C4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 불황 대비계획 발표

유나이티드 항공이 다음 경제 불황에서의 이익 보전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던 727과 구형 737을 퇴역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언제가 될 지는 모르지만 불황이라는 것은 다시 오게 마련입니다. 1999년이 아니라면 2000년이 될 수도 있지요” 불황에 대비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전략은 구형 항공기를 처분해서 운용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이 항공사는 구형 727 기종을 정기 노선에는 투입하지 않고 승객이 넘쳐 좌석수가 모자랄 때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령이 30년이 넘은 737-200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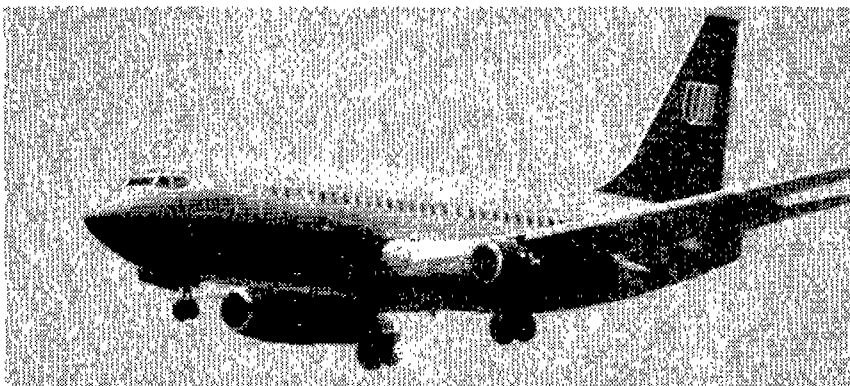
공기중 일부는 이미 퇴역시키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75대의 727-200을 퇴역시키면 현재 발주된 69대의 항공기의 인도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 항공사의 운송능력은 현재의 5억5천만 좌석-마일에서 2003년에는 5억 좌석-마일로 감소할 전망이다.

미, 노스웨스트·컨티넨탈 항공사 업무제휴

최근 미 노스웨스트항공과 컨티넨탈항공은 업무제휴를 맺고 국내·국제노선을 공동운항기로 하는 등 탑승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탑승객들은 두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항공편 연결이 편리해지고 서비스와 스케줄이 개선되는 한편 두 항공사간의 마일리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두 항공사는 우선 국내·외 95개국 8백 50편의 노선에 공동운항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며, 공동운항 서비스 예약은 오는 12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실제운항은 12월29일 일본노선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구조조정방안으로 구형 727과 737을 퇴역시킬 방침이다